

2026 새해설계 강진원 강진군수

“지역 기반 연결해 더 큰 미래로 도약하겠다”

교통망 혁신·미래산업 육성·인재양성 등 고도화 SOC·생활인프라 지원...군민 삶 변화 체감 노력

“지역을 있고 기반을 연결해 더 큰 미래를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말의 기상처럼 군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고물가, 농업·농촌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정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군수는 올해를 ‘연결을 통한 결실의 해’로 규정하고, 교통망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 농업 소득 증대, 인재 양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고속도로와 철도, 국도와 지방도로 이어지는 SOC, 전력과 상하수도, 생활 인프라 지원, 군민의 삶을 바꾸는

선도 정책, 3만2000명 군민의 역량이 하나로 연결될 때 강진의 변화는 군민 모두의 삶 속에서 체감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선 철도 개통에 따라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강진을 서남부권 관광 허브로 육성,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전철화에 적극 나서 쉽고 편리하게 찾는 강진을 만들겠다”며 “오는 12월 강진~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진과 광주는 30분 생활권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관광과 물류,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전반에도 큰 변화를 시도한다.

강 군수는 “반값여행과 공동 지역화



폐, 빈집 공유 등을 연계한 강진·광주 경제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해 그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철도·고속도로·국도를 잇는 동서·남북 십자형

관광 발전 전략으로 방문 인구 700만 시대를 열고, 동순천·서강진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말했다.

또 “강진만 횡단교를 중심으로 한 순환형 교통망은 동서 생활권을 하나로 묶고, 군민 이동 편의와 관광지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며 “마량~군동 국도 23호선, 해남 북일~도암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과 가지내재 터널 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 강화에도 나선다.

도로와 상하수도, 농로,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생활 SOC 확충에 805억원을 투입하고 293개 마을에 대해 균형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건설·토목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강진

읍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병대물 열고, 동순천·서강진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말했다.

강진의 자원을 미래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도 나선다.

강 군수는 “신강진변전소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전력 인프라는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세수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유치로 이어지는 새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진을 농업과 관광, AI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육성하고, 선도 정책을 연결해 소득향상을 도모한다.

그는 “올해 농업예산에 역대 최대 1615억원을 투입하고, 비 경영안정자금 확대, 축산 사료 지원,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하우스 개보수 등을 통해 농어민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며 “‘초록 믿음강진’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쌀 수출 판로를 넓혀 강진 농산물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청년과 농업 후계자, 가업 2세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어머니 한글교실 등 배움의 기회를 세대별로 확대한다.

또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리더와 봉사 인력, 안전 인력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며, 복지 정책 또한 촘촘히 연결해 노인,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완성한다.

강진원 군수는 “군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여 살기 좋은 강진, 행복한 강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완도 ‘해양치유로 재충전’ 동계훈련지 인기

16개 테라피 프로그램 제공...67개팀 1800여명 방문 예정

완도군이 은화한 기후와 잘 갖춰진 체육 시설 등으로 동계 전지훈련지로 해마다 주목받고 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5개 종목, 67개 팀의 1842명이 완도를 찾아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며, 지난달 26일부터 경기대학교와 수원대학교 등 8개 축구팀이 훈련을 진행 중이다.

1월 중순부터는 배드민턴, 소프트 테니스, 테니스, 초등부 축구팀이 순차적으로 찾는다.

완도는 ‘해양치유 1번지’로 정정한 해양 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힐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의 해양

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16개의 테라피를 이용할 수 있다.

16개의 테라피 중 특히 저주파 테라피는 근육 강화와 통증 완화, 명상 풀은 전신 이완, 비수 테라피는 수압 마사지로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또 건강 측정실의 체형 분석기를 통해 체형 측정·분석(체성분 검사, 인바디 등) 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치유 프로그램 전후 신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전지훈련 선수단 전용 그룹 운동(CX) 룸을 개방해 스트레칭과 휴식 공간도 제

공한다. 고등부·대학교 축구팀 선수들은 훈련 후 진행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곽태원 수원대학교 축구팀 감독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처음 해 봤는데 선수들이 컨디션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돼서 매년 완도를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치유를 접목한 전지훈련은 완도에서만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지훈련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선수들이 완도를 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진도,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바우처 신청 접수

매월 1인 가구 4만원

진도군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의

영양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농업의 순순환 구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지원 대상은 임신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였는데, 올해부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지난해 6400만원에서 올해 1억2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군미래교육재단,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올해 행복기숙사 입사생 15명을 모집한다.

입사생 지원은 지난해부터 재단이 시행해 온 사업으로, 총 11명의 대학생에게 990만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했다.

장학금에 이어 영암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행복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은 영암 출신

대학생은 오는 16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학생은 재단 교부 합격증을 받고, 들어가고 싶은 희망 행복기숙사에 입주 신청하면 된다.

이후 행복기숙사 입주가 최종 확정되면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기숙사비의 일부인 월 15만원, 학기당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주신성테크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선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

